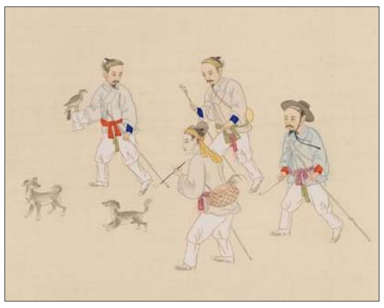
매사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자연과 인간의 만남

진안역사박물관서 특별전… 사냥 도구·매 박제 등 전시



진안군 진안역사박물관과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회장 이동희)가 공동개최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특별기획전 '자연과 인간의 만남, 매사냥' 전시가 17일부터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특별전은 매사냥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무료관람이며 내년 2월 말까지 열린다.

진안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에는 매사냥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함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 '매사냥'의 제1대 보유자인 故 전영태 응사와 제2대 보유자인 박정오 응사의 매사냥 도구 등을 전시한다.

매사냥은 매를 훈련시켜 야생의 꿩이나 토끼 등을 사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즐기기 시작하여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널리 행해졌다. 이에 매의 사육과 매사냥을 담당하는 관청인 응방(鷹坊)을 두기도 했으며, 구한말과 일제감정기 즈음에는 민간에까지 퍼져 성행하였다.

예로부터 역사 속 '매'는 통치자 또는 간사한 자를 척결하는 영웅 등의 이미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에 고려~조선시대의 매 또는 매 그림은 국왕의 통치수단으로 신하에게 하사되거나 국가의 외교선물 또는 교역품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진안군은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진안 매사냥이 지속적으로 보존·전승되어 대내외적으로 널리 재조명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에 대한 문의는 진안역사박물관(063-430-8085)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나의 인생친구를 소개합니다… '누구나멘토' 공모전

최우수 '멘토' 박미경·방경원·노성진씨, '일반' 정소현·서혜민·이수진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17일 대회의실에서 2020 인생나눔교실 기획사업 '인생친구 스토리 발굴 누구나멘토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세대·성별·직종 등을 넘어서는 멘토 발굴로 지역에 사람중심의 인문가치를 실현하고자 만들어진 기획 사업이다.

접수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나의 인생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일반 부문과 멘토 부문으로 나눠 총 38명이 응모했다.

최우수작은 멘토 부문 박미경, 방경원, 노성진 씨, 일반 부문 정소현, 서혜민, 이수진 씨가 차지했고, 우수작은 멘토 부문과 일반 부문 각각 5명과 10명이 선정됐다.

심사는 소재의 차별성, 내용의 완성도, 콘텐츠 활용성을 기준으로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소소하고 특별한 이야기 발굴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특별히 최우수작은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추후 영상 제작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공모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다양한 인생친구 이야기가 발굴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겼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혀질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인생친구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화사업팀(063-230-7445~6)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7일 센터 중회의실에서 지역 내 새일센터와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전북지역 노동시장 분석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환경에 따라 변화해야"

전북여성교육문화·새일센터 도내 노동시장 분석 포럼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17일 센터 중회의실에서 지역 내 새일센터와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전북지역 노동시장 분석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내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새일센터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도내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전북광역(거점센터), 전북, 전주, 군산, 익산(산단형), 정읍, 남원, 김제, 완주(농어촌형) 등이 있다.

이날 '코로나 시대 전북지역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국지역고용연구소 노대우 수석연구원은 여성가족부와 도내 새일센터 간 상호 연계로 체계적인 여성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며,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센터 간 소통과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경영학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상황은 긴박하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는 경력단절과 함께 생계 어려움까지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추진한 이윤애 센터장은 "여성일자리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취약 노동자 고용유지 대책을 강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경험한 여성의 빠른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성별화된 이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도 여성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전북광역새일센터가 주관이 돼 광역단위 민·관·산·학 일자리 협력체결 및 협의회 운영 확대, 여성고용 포럼·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여성 취업지원 정책 방향 공유와 정책제안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팔색조 매력' 조정래 영화감독, 국악콘서트 '다담' 출연

가슴아픈 역사 담긴 '귀향' 배경 들려준다

25일… 이봉근 명창의 화려한 무대도

조정래 감독

이봉근 명창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예원당에서 한잔의 차를 마시며,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 손님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국악연주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다재다능한 팔색조 매력을 갖춘 조정래 영화감독이 출연해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영화 '귀향'의 배경과 판소리 고법 이수자답게 우리소리를 영화 속에 녹여내려는 의미 및 영화 '소리꾼'에 담긴 에피소드, 해외 유수영화제 초청에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이봉근 명창의 맛깔스런 소리에 맞춰 조정래 감독이 화려한 북 반주를 선보여 보는 재미를 더 하고, 이봉근의 돈타령, 눈먼 사랑, 타루비 등의 화려한 무대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읽은 책을 바꿔보자' 25~27일 전주대 도서관서 도서교환전

전주대학교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미 읽었거나 펼치지 않는 책을 기증받고 읽고 싶은 책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주대 도서관(관장 왕석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스타센터 중앙분수대에서 '책사랑 도서 교환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중고 도서를 가져오면 1권당 1개의 교환권이 제공되고 이 교환권을 통해 기증된 도서 중에서 읽고 싶은 책으로 맞바꿔 갈 수 있다.

대학교재, 전공도서, 일반교양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교환할 수 있다. 단 오염이나 훼손된 도서, 풀이된 문제집, 기관·단체의 홍보용 도서, 만화책, 특정 종교 서적 등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사전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 방문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개인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